

학교 밖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의 관계에서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 지원의 다중가산조절효과

최려나* · 이지선** · 김서연***

Ⅰ 알기 쉬운 개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이후 생활의 불안정, 가족 갈등의 심화, 또래관계 단절,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이러한 복합적 어려움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 지원이라는 두 보호요인이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두 요인이 결합될 때 보호효과가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국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75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위험성이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가족관계가 안정적이고 정서적·실질적 지지가 충분할 경우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적절히 연결될 때에도 보호효과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과 지역사회가 동시에 지지적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 두 보호요인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위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단일 서비스 중심의 접근을 넘어, 가족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아우르는 통합적·다층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ezsun@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투 고 일 / 2025. 9. 8.

심 사 일 / 2025. 11. 3.

심사완료일 / 2025. 11. 12.

Ⅰ 초록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 질과 지역사회 지원의 다중가산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국 220개소 꿈드림센터로부터 표집된 학교 밖 청소년 75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6.0과 SPSS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여 다중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의 관계에서 가족관계 질과 지역사회 지원 모두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두 조절변수의 다중가산조절효과가 확인되어, 가족관계 질과 지역사회 지원이 동시에 높을 때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절변수 간의 결합적 보호효과는 생태체계 관점에서 개인·가족·지역사회 수준의 다층적 자원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정신건강 위험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개인 내적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접근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보호 체계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가족 및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경우, 학업단절 이후 초기 적응 단계에서 효과적인 개입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다중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가족관계와 지역사회 지원이 개별적으로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더 강력한 보호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층적 개입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지원체계 확충을 통한 통합적 지원방안의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학교 밖 청소년, 자살위험성, 스트레스, 가족관계의 질, 지역사회 지원, 다중가산조절효과

I. 서 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초등·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자퇴한 경우,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이는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체계에서 이탈하거나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개인적 사정부터 제도적·사회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학업 이탈에는 복합적 배경을 지닌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4만 6천 명으로 추산된다(여성가족부, 2023). 최근 수년간 매년 약 5만 명 내외가 학교에서 이탈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업 중단 사유의 변화이다. 2015년 8.4%에서 2018년 17.8%, 2023년 31.4%로 심리·정서적 문제로 인한 학업 중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은둔 경험은 6.4%로 나타났는데 ‘무기력·우울감(28.6%)’과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24.9%)’가 은둔의 주된 계기로 보고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중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응답도 23.6%로 2021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는 점이다(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2023).

자살위험성 측면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생보다 현저히 열위에 있다.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이 수행한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은 재학생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위험 고집단으로 분류된 비율 또한 학교 밖 청소년 21.7%, 재학생 6.1%로 큰 차이를 보였다(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2).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 과정에서의 좌절, 가족과의 갈등, 교우관계의 위축, 사회적 낙인과 차별, 낮은 취업률과 불안정한 노동 환경 등 복합적 어려움이 동반되면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안태용, 임혜경, 강선모, 2019).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누적되면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의 자살은 성인과 달리 대인관계 갈등과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 직후 비교적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비중이 높으며, 극심한 정서적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회피적 의미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다(정삼희, 2017). 따라서 청소년기에 급성 스트레스 관리와 보호요인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을 높이는 핵심요인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신영훈, 박선영, 2016; 이미영, 2021).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학업, 학교문제, 또래갈등 등의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와 유의미하게 관련됨을 보고하였다(정의롭,

2015).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수행됐으며, 학교 밖 청소년만의 특수한 스트레스 요인과 그 결과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기존 연구는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의 직접적 연관성을 밝히는 데 치중하였으나,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요인의 상호작용적 역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가족관계의 질은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정서적 지지와 원활한 의사소통, 가족 간 응집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가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낮추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김재엽, 성신명, 장건호, 2016).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기반 자원접근이 취약하므로, 제도권 밖에서 지역사회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라는 제도적 보호 체계에서 벗어난 이후, 새로운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멘토링, 직업체험, 지역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지역사회 자원은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위험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되었다(Hwang & Lee,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와 지역사회 지원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아, 두 요인이 동시에 작동할 때 나타나는 상호적 영향은 충분히 탐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 지원이 조절요인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두 요인이 개별적으로 뿐 아니라 동시에 작동할 때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 간의 관계를 얼마나 완화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다중가산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가족 및 지역사회 기반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적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과 동시에 교육적 기회 상실과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며, 이는 삶의 만족 저하 및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다(박동진, 김나연, 2019). 이들은 재학생보다 우울, 불안, 생활만족도 저하 등 정서적 문제를 더 빈번히 보고하며, 또래 관계의 위축이나 비행 연루, 경제적 곤란과 같은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최홍일, 이래혁, 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 노출 비율은 약 36.8%로 보고되어 재학생 집단과의 격차가 현저히 드러났다(최정원 외, 2022). 이러한 통계는 임상·행정자료 기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임상 표본을 활용한 실증연구에서도 동일한 맥락이 제시된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한 학교 밖 청소년 280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살위험군의 비율이 28.6%에 달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을수록 자살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대로 가족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위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요인(외상·정서적 증상)과 보호요인(가족기능)의 상호작용이 자살위험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었다(조지현 외, 2023).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을 비교한 최근 연구에서는 자살위험을 설명하는 요인 패턴이 일부 상이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전국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6,68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두 집단 모두 우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집단에서는 지지체계의 조기 형성과 사회적 관심 확대가 특히 강조되었다(임준호, 2025). 이는 “학교 밖”이라는 제도권 이탈 경험이 단순한 학업 중단을 넘어 사회적 자원 접근성 저하와 낙인 경험을 동반하며, 자살위험의 경로가 재학생과 다르게 구성됨을 보여준다.

2.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의 관계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발달과업인 정체성 형성, 또래관계, 진로 탐색뿐 아니라 가정경제, 돌봄 부담, 지역사회 자원 접근성과 같은 일상적 맥락이 중첩되며 누적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단순한 일시적 긴장을 넘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우울과 무망감이 심화되며, 이는 자살사고로 전이되는 경로를 강화한다는 결과가 메타-경로분석과 대규모 설문조사 기반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전혜민, 배성우, 2016). 구체적으로, 전국 중·고등학생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정불화형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자살사고 간의 연결이 유의하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영, 2021). 대인관계 영역의 스트레스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자살사고와 정적으로 연관되며, 자아존중감은 조절변수로서 이 관계를 완화하는 보호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신영훈, 박선영,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한층 두드러진다. 재학생보다 다층적 스트레스원이 중첩되며, 학교라는 제도권 보호 체계의 부재가 위험을 가중시킨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

으로 5년간 종단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살시도 경험률이 11.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특히 학업중단 직후 1년 이내가 예방 개입의 ‘골든타임’임이 강조되었다(박현주, 2021). 이러한 결과는 학업·관계 단절, 낙인, 경제·돌봄 부담 등 다층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누적되며 자살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노출 강도뿐 아니라, 학업중단 직후 초기 개입의 시기성과 가족기능·양육환경을 동시에 표적화한 다층적 접근이 결정적임을 알 수 있다.

3. 가족관계 질의 조절효과

가족은 청소년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1차 환경으로, 정서적 연결감, 개방적 의사소통, 낮은 갈등 수준, 적절한 경계 유지 등은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된다. 특히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기본 심리욕구 충족을 통해 자살생각을 낮추는 매개적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양승란, 2021). 이는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가족 간 의사소통의 질이 높을 경우, 부정정서의 누적과 반추가 완화되어 자살 관련 사고로의 전이가 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관계의 구조적 특성 역시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보고된다.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황희정과 이주영(2016)의 연구에서는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회복탄력성이 그 경로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가족 체계의 응집성과 적응 수준이 정서조절 자원을 확충하고, 자살위험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정서적 유대 차원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제시된다.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와의 신뢰와 안정적 애착이 자기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살 관련 사고로의 이행을 지연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최혜정, 2020). 즉,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력을 보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한다.

4. 지역사회 지원의 조절효과

학교 밖 청소년처럼 제도권 교육체계 기반의 자원이 취약한 집단에서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지역사회 지원이 중요한 보호망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에서의 ‘지역사회 지원’은 제도적 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이 일상적 관계망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감과

위기 시 공식 기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맥락의 지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가족, 친구, 교사를 제외한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서적 지지(믿을 만한 사람, 도움을 줄 사람)와 도구적 지지(이용 가능한 기관/시설)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포괄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지역사회 자원’—지자체 단위의 시설, 예산, 정책 환경 등 객관적 인프라—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지 경험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역사회 지원’은 개인 수준의 지각된 지지(perceived support)를 측정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주관적 지지감이 스트레스-자살위험 경로를 완화하는 심리적 보호 요인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지 경험에 초점을 두기 위함이다. 이 개념은 ‘가족관계의 질’(가족 내부의 의사소통·응집·갈등 등 관계의 과정·구조)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최근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맥락에서의 지지와 결속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독립적 요인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지된 지역사회 환경은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관련 지표를 낮추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Kim et al., 2024), 지역사회 결속과 신뢰는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 Thomas, 2024). 또한 지역사회 결속은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고립감, 우울을 낮추고 심리적 안녕을 증진하는 장기적 보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어(Kulchar et al., 2024), 지역사회 기반 지지가 스트레스-자살위험 경로를 약화시키는 조절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가족관계의 질은 가족 체계 내부에서 형성되는 의사소통 방식, 응집 수준, 갈등 관리의 양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약화시키는 일차적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 반면 지역사회 지원은 가족과 학교 체계를 넘어선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호적 자원으로, 일상적 관계망 속 정서적 지지와 위기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공식적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관계의 질을 일차적 보호 체계로, 지역사회 지원을 가족 외부의 보완적 보호 체계로 개념화하여 두 요인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5. 다중조절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의 관계에서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 지원이 각각 조절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그러나 두 요인이 동시에 작동할 때 나타나는 상호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은 미시체계(가족), 중간체계(지역사회), 거시체계(사회제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 동시에 높을 때 보호 효과가 가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지지 이론 관점에서도 다중 지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발휘하며, 지지원이 다양할수록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력이 강화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라는 주요 지지 체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합적 지원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 지원이 개별적 조절효과뿐 아니라 다중가산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다층적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층화집락추출을 통해 표집된 전국의 초중고생 5,937명과 학교 밖 청소년 752명, 총 6,689명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의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220개소의 꿈드림센터로부터 임의추출을 통해 표집되었으며 이러한 표집 방법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먼저 꿈드림센터에 등록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체계에 진입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인 은둔형 청소년이나 비행 집단에 깊이 관여된 청소년 등 접근이 어려운 고위험군이 표본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의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표집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데이터는 현재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2차 자료 중 가장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접근 가능한 학교 밖 청소년(accessible out-of-school youth)’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자살위험성

자살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한국형 정신건강 선별도구인 자살위험성(MHS:S, mental health screening for suicide risk) 척도 4문항을 사용하였다. ‘결코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문항은 ‘(지난 2주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지난 2주간) 자살을 생각했다’, ‘(지난 2주간)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했으며 구체적인 방향까지 계획했다’, ‘과거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에는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79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지각된 스트레스(KPSS-A: Korean version of perceived stress scale for adolescents) 척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대처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등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부정 문항인 4번, 5번, 7번과 9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없었다=1’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5’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태조사에서의 KPSS-A의 내적 신뢰도는 .77이었다(윤정미 & 김진영, 2019).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는 .874로 나타났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절변수: 가족관계 질, 지역사회 지원

가족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지표 조사의 건강·안전(보호) 지표(최인재 외, 2010) 중 ‘가족관계 질’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등 가족구성원 간 유대감이나 친밀 정도를 나타내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2로 나타났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지원은 한국청소년지표 조사의 주변의이지지, 지역사회 소속감, 지역사회 내 자원접근에 관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 친구, 학교선생님/꿈드림센터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가족, 친구, 학교선생님/꿈드림센터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로 구성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 문항들은 '가족, 친구, 학교선생님 외에'라는 표현을 통해 가족 지지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가족관계 질 변수와 측정 수준에서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0으로 나타났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통제변수: 성별, 가정형편

본 연구에서는 성별(남성=0, 여성=1)과 가정형편(하=1~상=7)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성별은 청소년 자살위험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율이 높으며(Hur et al., 2008; Jung et al., 2019),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양식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Jung et al., 2024).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별 차이가 보고된 바 있다(조지현 외, 202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역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며(박다혜, 장숙량, 2013),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자 이후 생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Ko, Lee & Kim.,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성별과 가정형편을 통제변수로 투입함으로써, 주요 변수 간 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Hayes(2013)의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이후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2를 적용하였다. 본 모형은 1개의 독립변수(스트레스), 1개의 종속변수(자살위험성), 2개의 조절변수(가족관계의 질, 지역사회 지원)로 구성된 다중조절모형이다. 분석 시 성별과 가정경제상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기존 위계적 회귀분석은 조절변수 간 상호작용의 복합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PROCESS Model 2는 두 조절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에 미치는 개별 조절효과와 복합 조절효과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어, 본 연구가 목표로 한 보호요인의 누적적 작용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Hayes, 2013). Hayes(2013)는 PROCESS Model 2를 통한 다중조절효과 분석 시, 상호작용항의 유의성뿐 아니라 조절변수의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나는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s)의 패턴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Igartua와 Hayes(2021)는 다중조절모형에서 단일 상호작용항의 유의성만으로는 조절효과의 실질적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조절변수 수준별 효과 크기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다중가산조절효과를 입증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 권고에 따라 조절변수의 고·저 수준에서 조건부 효과 크기와 변화 경향을 검토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사회 지지의 누적적 보호효과를 정교하게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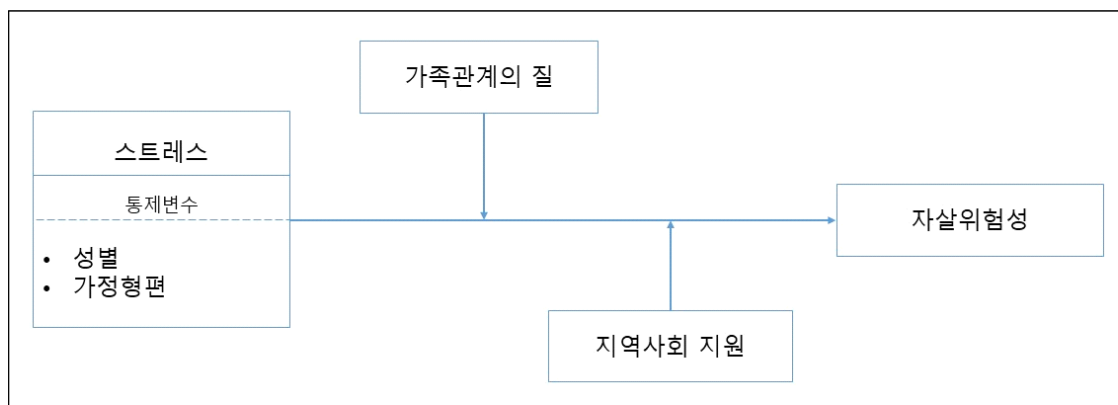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최종 분석에 포함된 설문 응답은 총 75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266명(35.4%), 여학생 486명(64.6%)이었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이 682명(90.7%), 기숙사/하숙/자취 61명(8.1%), 기타 9명(1.2%)이었다. 권역으로는 경상 260명(34.6%), 경기/인천 201명(26.7%), 강원/충청 116명(15.4%), 전라/제주 112명(14.9%), 서울 63명(8.4%) 순이었다. 부모님 별거/이혼/사별 여부로는 해당 사항 없음이 524명(69.7%)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165명(21.9%), 사별 32명(4.3%), 별거 31명(4.1%) 순이었다. 가정형편으로는 중으로 응답한 경우가 341명(4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752	
Characteristics	n (%) or M \pm SD	Characteristics	n (%) or M \pm SD
성별		부모님 별거/이혼/사별여부	
남	266(35.4)	별거	31(4.1)
여	486(64.6)	이혼	165(21.9)
거주형태		사별	32(4.3)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682(90.7)	해당사항 없음	524(69.7)
기숙사/하숙/자취	61(8.1)	가정형편	
기타	9(1.2)	하	17(2.3)
권역			70(9.3)
서울	63(8.4)		152(20.2)
경기/인천	201(26.7)	중	341(45.3)
강원/충청	116(15.4)		117(15.6)
경상	260(34.6)		44(5.9)
전라/제주	112(14.9)	상	11(1.5)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각 변수의 왜도(-.66~2.29)의 절대값이 3 미만이며, 첨도(-.05~4.80)의 절대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Kline(2015)이 제시한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

하는 수준으로, 최대우도추정법 적용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주요 변수들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자살위험성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5, p<.01$).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위험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Cohen(1988)의 기준에 따르면 중간에서 큰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둘째, 조절변수들과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관계 질은 스트레스와 약한 부적 상관관계($r=-.23, p<.01$)를 보여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관계 질은 자살위험성과도 약한 부적 상관관계($r=-.29, p<.01$)를 나타내어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자살위험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지역사회 지원은 스트레스와 약한 부적 상관관계($r=-.29, p<.01$)를, 자살위험성과는 약한 부적 상관관계($r=-.27, p<.01$)를 보였다. 이는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지원이 많을수록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이 모두 낮아짐을 의미한다. 넷째, 두 조절변수 간의 관계를 보면, 가족관계 질과 지역사회 지원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r=.46, p<.01$)를 보였다. 이는 가족관계가 좋은 청소년일수록 지역사회 지원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상관관계수가 0.9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관관계 패턴은 본 연구의 이론적 가정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가족관계 질과 지역사회 지원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예비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두 보호요인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이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후속 조절효과 분석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상관관계수는 모두 0.9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회귀분석 실시에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Variables	1	2	3	4
M	1.79	3.05	2.64	.46
S.D	.93	.82	.94	.87
왜도	-.52	-.66	-.19	2.29
첨도	-.57	-.05	-.96	4.80
1. 스트레스	1			
2. 가족관계 질	-.23**	1		
3. 지역사회 지원	-.29**	.46**	1	
4. 자살위험성	.45**	-.29**	0.27**	1

* $p<.05$, ** $p<.01$, *** $p<.001$

3. 가족관계의 질 및 지역사회 지원의 다중가산조절효과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인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 질과 지역사회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다. 이는 Hayes(2013)가 제안한 조절효과 모형(Model 2)으로 분석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독립변인, 자살위험성을 종속변인, 가족관계 질과 지역사회 지원을 조절변인, 성별과 가정형편은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스트레스(A)가 종속변수인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95$, $t=8.80$, $p<.001$). 이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위험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스트레스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자살위험성이 0.95점 증가함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척도의 표준편차(0.82)를 고려할 때,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평균 수준의 청소년보다 자살위험성이 약 0.78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hen(1988)의 기준에 따르면 큰 효과 크기에 해당한다.

다중가산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상호작용항의 유의성 검증결과,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질의 상호작용항($B=-.10$, $t=-2.59$, $p<.01$)과 스트레스와 지역사회 지원의 상호작용항($B=-.11$, $t=-3.19$, $p<.01$) 모두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관계 질과 지역사회 지원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족관계와 지역사회 지원이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보호 요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가족관계 질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0.10점씩 감소하였으며, 지역사회 지원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0.11점씩 감소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지원이 가족관계 질보다 약간 더 강한 조절효과를 보임을 시사한다. R^2 값은 .29이었고,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은 총 변량의 29%를 설명하였다($F=45.26$, $p<.001$).

표 3

가족관계 질과 지역사회 지원의 다중가산조절효과

Variables	coeff	SE	t
(Constant)	-.70	.25	-2.74**
성별	.13	.06	2.31*
가정형편(경제적 수준)	-.00	.03	-.05
스트레스 (A)	.95	.11	8.80***
가족관계 질 (B)	-.01	.08	-.10
지역사회 지원 (C)	.11	.07	1.60
A × B	-.10	.04	-2.59**
A × C	-.11	.04	-3.19**
R		.53	
R ²		.29	
F		42.56***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상호작용항 투입을 한 후의 모델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질의 경우 0.6%(R^2 -chg=.006)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트레스와 지역사회 지원의 상호작용항은 1%(R^2 -chg=.010) 증가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표 4

상호작용항 투입과 이로 인한 R^2 변화량

구분	R^2 -chg	F	df1	df2
스트레스 x 가족관계 질	.006	6.70**	1.00	744.00
스트레스 x 지역사회 지원	.010	10.19**	1.00	744.00
Both	.034	17.71***	2.00	744.0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가족관계 질과 지역사회 지원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의 조건부 효과 크기(conditional effect size) 및 경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조절변수(B와 C)의 평균값과 평균값의 ± 1 표준편차 값을 이용하여, 총 9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두 조절변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지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조건부 효과크기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관계 질이 낮은 집단(-1SD)에서는 지역사회 지원 수준이 낮은 집단($t=12.11$, $p < .001$), 지역사회 지원 수준이 평균인 집단($t=10.05$, $p < .001$), 지역사회 지원 수준이 높은 집단($t=5.05$, $p < .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관계 질이 평균인 집단 중에서도 지역사회 지원 수준이 낮은 집단($t=9.50$, $p < .001$), 지역사회 지원 수준이 평균인 집단($t=10.95$, $p < .001$), 지역사회 지원 수준이 높은 집단($t=5.26$, $p < .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관계 질이 높은 집단 중에서는 지역사회 지원 수준이 낮은 집단($t=5.48$, $p < .001$), 지역사회 지원 수준이 평균인 집단($t=5.63$, $p < .001$), 지역사회 지원 수준이 높은 집단($t=3.39$, $p > .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조건부 효과크기는 보호 요인의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하였다. 가족관계 질과 지역사회 지원이 모두 낮은 집단에서는 스트레스의 조건부 효과가 $B=.54$ 로 가장 높았으며, 두 요인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는 $B=.15$ 로 가장 낮았다. 이는 고위험군 대비 72%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 보호 요인의 통합 조절효과($\Delta R^2=.034$)가 개별 효과의 단순합($0.6\%+1.0\%=1.6\%$)보다 큰 값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두 보호 요인 간의 상승작용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조건부효과크기에 따른 조절변수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관계 질의 조절효과는 가족관계 질이 높을수록(M +1SD)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B값)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지원 수준이 낮음(-1SD)일 때 가족관계 질이 '낮음'인 경우 B값은 .54인 반면, 가족관계 질이 '높음'인 경우 B값은 .37로 감소한다. 지역사회 지원의 조절 효과는 가족관계 질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질이 평균일 때 지역사회 지원이 '낮음'인 경우 B값은 .45인 반면, 지역사회 지원이 '높음'인 경우 B값은 .24로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다중가산적 효과를 살펴보면, 가족관계 질과 지역사회 지원 수준이 모두 높을 때(M +1SD, M +1SD)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5$). 이러한 결과는 두 보호 요인이 함께 작용할 때 그 효과가 누적되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효과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표 5

조절변수(가족관계 질과 지역사회 지원)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의 조건부 효과크기

변수		B	SE	t	95%	
가족관계 질	지역사회 지원				LLCI	ULCI
M -1SD	M -1SD	.54	.04	12.11***	.45	.62
	M	.43	.04	10.05***	.34	.51
	M +1SD	.32	.06	5.05***	.19	.44
M	M -1SD	.45	.05	9.50***	.36	.55
	M	.34	.03	10.95***	.28	.41
	M +1SD	.24	.04	5.26***	.15	.32
M +1SD	M -1SD	.37	.07	5.48***	.24	.50
	M	.26	.05	5.63***	.17	.35
	M +1SD	.15	.05	3.39**	.06	.24

* $p<.05$, ** $p<.01$, *** $p<.001$

I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꿈드림센터로부터 임의추출을 통해 표집된 학교 밖 청소년 752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 지원의 다중가산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취약 집단을 위한 보호 요인의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고,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업중단 과정에서의 좌절, 사회적 낙인, 진로 불안정성 등이 누적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자살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학업, 또래 갈등 등과 같은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신영훈 & 박선영, 2016; 이미영, 2021). 특히, 학교라는 제도적 보호막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업 중단, 사회적 낙인, 경제적 어려움 등 다층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둘째,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 지원이라는 보호 요인에 의해 유의하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 정서적 유대감, 개방적 의사소통, 상호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으로 전이되는 경로가 약화하고(양승란, 2021; 최혜정, 2020; 황희정 & 이주영, 2016), 지역사회 지원 역시 학교라는 제도적 보호 체계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Kim et al., 2024; Oh & Thomas, 2024; Rogers et al., 2024). 즉,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이 단순히 개인 내적 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 환경적 보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우울과 무망감이 심화되어 자살사고로 전이되는 경로를 강화하지만, 가족과 지역사회 자원이 이러한 경로를 완화하는 조절 요인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셋째, 가족관계의 질과 지역사회 지원, 이 두 개의 보호 요인이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작용할 때 그 효과가 누적적으로 강화된다는 사실, 즉 다중가산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보호 요인이 중첩될수록 자살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강력하게 완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적 보호 요인보다 다층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때 더욱 강력한 예방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족을 1차 보호 체계로 다시 기능하게 만드는 개입이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의 질이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약화시키는 조절요인으로 검증된 만큼, 단순한 갈등 중재를 넘어 가족 상호작용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심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족관계 질 향상을 위한 개입은 학교 밖 청소년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가족은 학업중단으로 인한 갈등, 진로 불안, 상호 비난이 누적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한 부모교육이나 가족상담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에 대한 부모의 관점 전환 프로그램으로 학업중단을 실패가 아닌 대안적 발달과정으로 재해석하도록 돕는 부모교육이나 가족 회복 프로그램으로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 패턴을 형성하는 가족치료, 부모-자녀 공동 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업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돕는 체험 프로그램 등, 감성코칭, 비폭력 대화, 가족 회의 등 관계기술 중심의 중재를 통해 의사소통 패턴을 재정비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입은 가족을 ‘갈등의 장’이나 ‘위험요인의 근원’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서, 회복과 재적응을 이끄는 주체적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다.

둘째, 지역사회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실제로 접근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사회적 지지감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꿈드림센터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청년, 지역주민을 멘토로 연결하여 가족 외 믿을 만한 성인과의 관계 형성하도록 돕거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들과의 정기적 만남을 통한 소속감 형성하도록 또래 지지 집단을 운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위기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기반의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성을 가지므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은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필수적인 안전망이다. 본 연구 결과는 ‘꿈드림센터’ 외에 지역사회 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관 간 통합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새로운 소속감과 지지를 얻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르 동시에 경험하도록 돕는 총합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다중가산조절효과 결과는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이 동시에 제공될 때 효과가 극대화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별 사례관리 시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을 동시에 평가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가족관계, 지지자원 수준,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가족 중재와 더불어 개인 맞춤형 정서지원·관계망 구축·회복력 증진 프로그램을 병합하는 통합적 개입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족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병행하거나, 부모와 멘토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서조절 훈련, 스트레스 관리 교육, 위기 대처기술 강화, 또래·성인 멘토 배치 등 정서·관계 중심 개입을 다층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지 경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학업중단 초기에 집중적으로 개입하여 청소년이 빠르게 새로운 지지 체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 직후 1년이 자살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꿈드림센터 등록과 동시에 가족상담, 멘토 배치, 또래 집단 참여를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요컨대,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넘어,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제로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관계 중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핵심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개인

적 취약성과 환경적 보호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족과 지역사회 기반의 심리사회적 지지 강화가 핵심적 자살예방 전략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 재학생 중심의 청소년 자살위험 연구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장하여 이들의 특수한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도가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만 이해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개인적 취약성(스트레스)과 환경적 보호 요인(가족,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생태체계적 관점(ecological systems perspective)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는 단순히 변수 간의 직접적 관계를 밝히는 데 그쳤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복합적 맥락 속에서 자살위험이 어떻게 구성되고 완화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라는 제도적 울타리에서 이탈하면서 학업 단절, 사회적 낙인, 경제적 어려움 등 다층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누적되는 시기에 진입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위험이 증폭되는 시점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이라는 ‘새로운 안전망’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위험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개입보다, 이탈과 동시에 보호 요인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예방적 접근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단일 조절변수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다중가산조절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여러 보호 요인의 누적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예방 연구의 방법론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특정 시점의 자료를 분석한 횡단적 연구로,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살위험성, 보호 요인의 시간적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개입 효과를 장기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모든 측정 변인(스트레스, 자살위험성, 가족관계 질 등)이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존하고 있어, 응답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편향이나 기억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감한 주제인 자살위험성에 대해서는 응답이 과소 보고될 위험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주로 ‘꿈드림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으로, 지원체계에 진입하지 않은 ‘은둔형’ 청소년 등 잠재적 고위험군이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는 연구 결과를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업중단 사유, 기간, 연령대에 따라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위집단별 맞춤형 개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와 지역사회 지원 외에도 또래 관계, 온라인 네트워크, 자아존중감과 같은 다양한 보호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나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이러한 요인들의 작동 과정을 심층적으로 규명

하고,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다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이용 가능한 최적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가족관계와 지역사회 지원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학문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특히 가족과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 요인이 동시에 작동할 때 자살위험성이 효과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 정책 및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정책은 개인 차원의 개입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보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 김양희 (2019). 한국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현황과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7), 546-558. doi:10.5392/JKCA.2019.19.07.546
- 김영환 (2020).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예방에 미치는 영향: 성별, 학년, 학교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5), 193-205. doi:10.21184/jkeia.2020.7.14.5.193
- 김재엽, 성신명, 장건호 (2016).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1, 187-218. doi:10.16975/kjfs.2016.51.006
- 김진호, 양경화, 강희양 (2017). 청소년의 생활사건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 양식의 조절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6(1), 283-301. doi:10.20497/jwce.2017.6.1.283
-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2023).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박동진, 김나연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3), 71-87. doi:10.36697/skya.2019.5.3.71
- 신영훈, 박선영 (2016). 청소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토. **청소년복지연구**, 18(1), 235-259. doi:10.19034/KAYW.2016.18.1.10
- 박다혜, 장숙량 (2013).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6), 2667-2676. doi:10.5762/KAIS.2013.14.6.2667
- 박현주 (2021).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경험 이후 5년 동안 자살시도 예측요인: 중단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4(3), 151-160.
- 안태용, 임혜경, 강선모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진로 재구성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초등상담연구**, 18(5), 615-637. doi:10.28972/kjec.2019.18.5.615
- 안태용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발달궤적 탐색: 예측요인의 영향 및 결과변인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32(4), 271-293. doi:10.21024/pnuedi.32.4.202212.271
- 양승란 (2021). 부모-자녀의사소통 유형이 남·여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9(2), 13-24. doi:10.55063/KIYFE.2021.19.2.2

- 여성가족부 (2024, 5월 9일).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842
- 윤정미, 김진영 (2019). 한국판 청소년용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3), 569-586. doi:10.17315/kjhp.2019.24.3.003
- 이미영 (2021).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조절 효과로. **청소년문화포럼**, 66, 83-104. doi:10.17854/ffyc.2021.04.66.83
- 이형권 (2016). SPSS/AMOS를 이용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집현재.
- 임준호 (2025).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비교.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11(1), 769-781. doi:10.47116/apjcri.2025.01.58
- 진혜민, 배성우 (2016). 청소년 자살생각에 관한 메타경로분석: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8(2), 85-113. 10.19034/KAYW.2016.18.2.05
- 정삼희 (2017). 자살행동 청소년의 극복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교정담론**, 11(1), 279-313.
- 정의롬 (2015). 청소년 스트레스 요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2), 193-214.
- 조지현, 김장래, 배활립, 전명욱, 이정신, 이소희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62(4), 173-181. doi:10.4306/jknpa.2023.62.4.173
- 최인재, 이기봉 (20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 지표 조사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2).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혜정 (2020).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9(1), 27-45.
- 최홍일, 이래혁 (2020).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2, 1 - 27. doi:10.20993/jSSW.52.1
- 황희남, 신효정 (201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발달지원연구**, 4(2), 91-112.
- 황희정, 이주영 (2016).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777-80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doi:10.1037/1082-989X.1.1.16
- Hayes, A. F. (2013).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1(6), 12-20.
- Hur, J. W., Lee, B. H., Lee, S. W., Shim, S. H., Han, S. W., & Kim, Y. K. (2008). Gender differences in suicidal behavior in Korea. *Psychiatry Investigation*, 5(1), 28. doi:10.4306/pi.2008.5.1.28
- Hwang, H. J. & Lee, J. Y.(2016), The effects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8(3), 777-800.
- Igartua, J. J., & Hayes, A. F. (2021).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Concepts, computations, and some common confusions.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24, e49. doi:10.1017/sjp.2021.46
- Jung, S. I., Lee, S. Y., Kim, D. J., & Yang, C. M. (2024). Risk Factors and Trends in Adolescent's Suicide Attempt Rates Before and after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J. Korean Med. Sci*, 39, e32. doi:10.3346/jkms.2024.39.e32
- Jung, S., Lee, D., Park, S., Lee, K., Kweon, Y. S., Lee, E. J., ... & Hong, H. J. (2019). Gender differences in Korean adolescents who died by suicide based on teacher report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3(1), 12. doi:10.1186/s13034-019-0274-3
- Kim, E. S., Wilkinson, R., Case, B. W., Cowden, R. G., Okuzono, S. S., & Vander Weele, T. J. (2024). Connected communities: Perceived neighborhood social cohesion during adolescence and subsequent health and well-being in young adulthood-An outcome-wide longitudinal approac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2(6), 774-791. doi:10.1002/jcop.23130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ress.
- Ko, M. J., Lee, E. Y., & Kim, K. (2014).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 posit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the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9(9), 1287. doi:10.3346/jkms.2014.29.9.1287
- Kulchar, R. J., Rogers, B. J., Neally, S. J., Shishkov, A., Deng, Y., Moniruzzaman, M., & Tamura, K. (2024). Perceived Neighborhood Social Environment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Insights from the Add Health. *Health Equity*, 8(1), 816-824. doi:10.1089/heq.2024.0100
- Oh, J., & Thomas, M. M. (2024). The mediating role of neighborhood social cohesion and tru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terial hardship and adolescent depression. *Health & Place*, 85, 103162. doi:10.1016/j.healthplace.2023.103162

ABSTRACT

The impact of stress on suicide risk among out-of-school youth: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quality and community support

Cui, Lina* · Lee, Jisun** · Kim, Seoye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quality and community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e risk among out-of-school youth.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Youth Mental Health Survey" colle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ith a final sample of 752 out-of-school youth.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ress among out-of-school youth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uicide risk. Second, family relationship quality and community support were found to ha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e risk, confirming that both factors mi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e risk. Therefo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ed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quality and community support as protective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e risk among out-of-school youth. Through this, intervention strategies and support measures at the family and community levels to promote the mental health of out-of-school youth were explored, and social work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suicide risk, stress, family relationship quality, community resources, out-of-school youth

* Ewha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Associate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ezsun@ewha.ac.kr

***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Master's student